



사사기의 역설과 완전한 구원

끊어지는 실과 영원한 끈

끝없는 실패의 굴레

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은 이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했습니다.
왜 그들은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?



위대한 사사들의 치명적 한계

기드온

업적: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기적의 승리.

실패: 금으로 화려한 에봇을 만들어 온 이스라엘을 다시 죄에 빠뜨리는 올무가 됨. (삿 8:27)

삼손

업적: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압도적인 물리적 힘.

실패: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결국 스스로 무너짐.



사사 시대의 비극적 결론

사사가 그렇게 많았는데, 마지막은 왜 엉망이었을까요?

그 때에 이스라엘에
왕이 없으므로
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
옳은 대로 행하였더라



구원의 단절: 죽음이라는 한계

**사사들은 힘이 셋지만,
완전하지 않았고
결국 모두 죽었습니다.**

죽음과 동시에 그들이 주도했던 구원의 힘도 사라졌습니다. 이스라엘은 새 사사가 필요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.

인간 구원자의 생명 주기

아무리 좋은 사사가 와도, 시간이 지나면 구원은 끊어집니다.

인간 구원자의 생명 주기



패러다임의 전환: 더 강한 사사가 아닌, 영원한 왕

이스라엘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더 힘센 사사가 아니었습니다.

한 번 구원하면, 다시는 죄와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줄
절대 끊어지지 않는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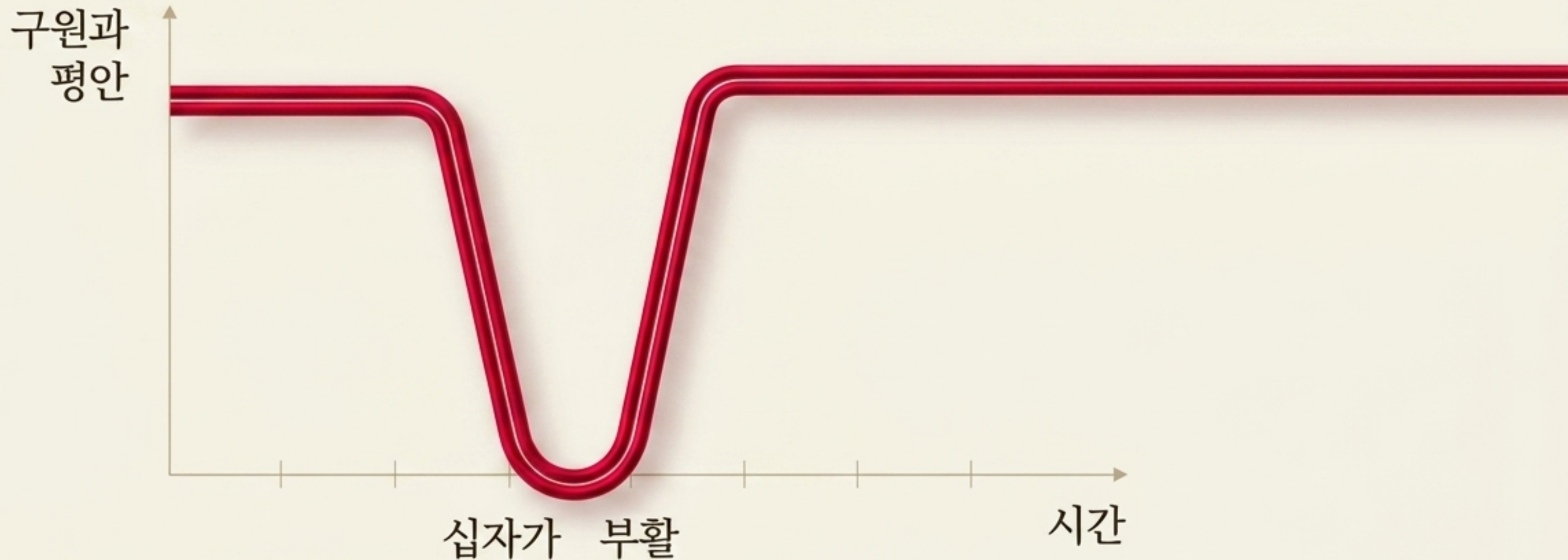


일시적 구원 vs. 영원한 구원

	인간 사사	최후의 사사 (예수님)
평온의 기간	웃니엘: 40년 동안만 평온을 줌	영원한 평온을 주심
온전함	삼손: 자기 힘도 지키지 못하고 죄에 빠짐	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심
구원자의 상태	다 죽어서 그 구원이 끝남	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

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선

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...
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(고전 15:3-4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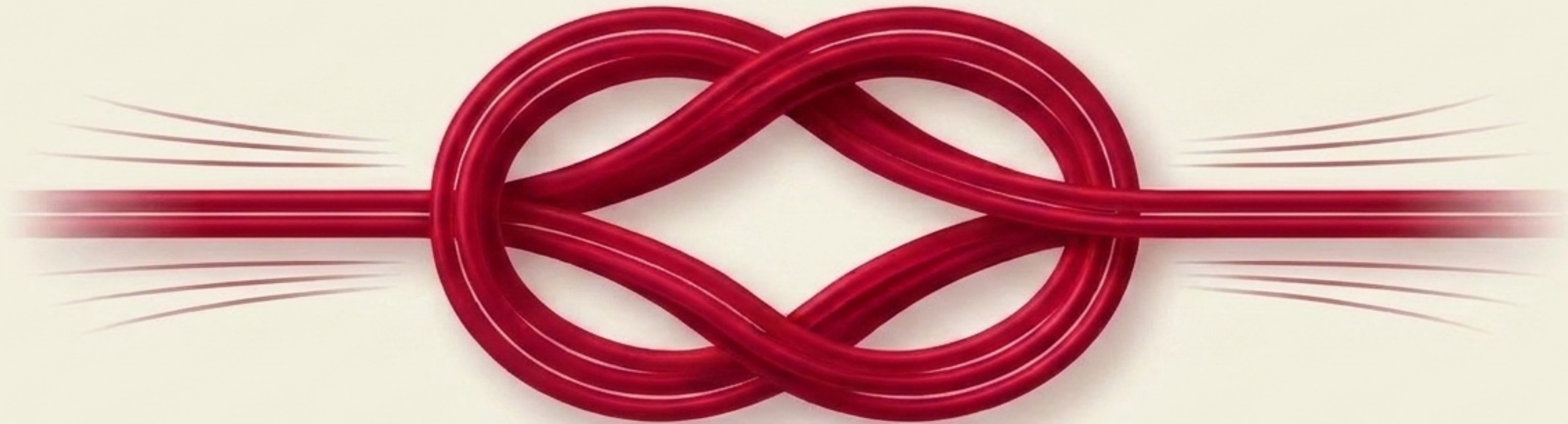
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,
이 구원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.

파편화된 모형에서 완전한 실체로

사사들이 가진 좋은 점들은 단지 부분적인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.
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.



어? 안 끊어지네요?



한 번 예수님을 믿고 받으면,
이 끈은 절대 다시 끊어지지 않습니다.

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,
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안전합니다.

마지막 사사

예수님이 오셨기에,
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구원자를
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.

내 구원은 절대 안 끊어져요!